



사양별꿀 자율표시제 개선 관계자 회의 열려

-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상생하는 개선안 찾아야
- 표시제도, 관련기관 및 단체가 참여/제도개선(안) 마련 예정

지난 1월 26일(화) 본 협 대회의실에서 농림수산 식품부(2명)을 비롯한 양봉협회, 토봉협회 회장, 농협중앙회 양돈 양봉팀장, 양봉조합장 및 이사, 농진청 잠사양봉소재과(1명), 소비자시민모임 등 각계 각층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6개월간 사양 별꿀 시범운영한 문제점과 사양별꿀 자율표시제도 개선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8월부터 6개월간 시범운영 된 사양별꿀

자율표시제도는 사양별꿀의 혼입여부를 표시함으로써, 꽃꿀과 사양꿀의 혼합비율과 탄소동위원소 분석결과를 제품명과 제품유형, 사양꿀의 정의 등을 표기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리기 위한 제도였다. 이는 과거 천연꿀과 사양 꿀을 특별한 구분 없이 판매해 왔고, 항생제와 가짜꿀 파동이 터질 때 마다 소비자 불신으로 이어져 양봉농가 피해가 속출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였다.

그 동안 양봉협회는 사양별꿀 자율표시제를 두고 일부 양봉인들은 사양별꿀을 양성화하고, 협회 독단적으로 밀실에서 법을 개정 했다고 오인 받아 왔다.

국가법을 협회 임의대로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은 양봉인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율표시제는 지난 8월 관계기관(농림부, 식약청, 농진청) 및 단체, 협회, 농협중앙회, 양봉조합, 소비자단체 등이 수차례 회의에 걸쳐 식약청의 승인 하에 6개월간 시범 운영·실시해 왔다.

이날 사양별꿀 자율표시제 개선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개선책은 표시 제도를 명확히 하여 소

비자에게 불신을 해소하고 소비자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협회에서는 사양별꿀을 규격화 및 별도 항목을 신설할 경우 수·출입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현재 국제적인 벌꿀 수·출입은 인조꿀과 천연꿀의 2가지로 분류 되어 있으나, 향후 사양별꿀 규격/기준을 별도 신설할 경우 사양별꿀 항목추가로 국내수입의 폭을 완화해주는 것이므로 사양별꿀 규격화에 대한 문제점을 관계 기간에 건의했다.

따라서 양봉협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표기내용 개선과 규격/기준신설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2월 말경에 2차 관계자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며, 소비자와 생산농가가 함께 상생하는 대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양봉**



▲ (왼쪽부터) 토봉협회 김종천 회장, 양봉조합 김용래 이사, 양봉협회 오만균 부회장, 양봉협회 김종문 이사, 소비자 시민모임 강광파 상임이사, 농림수산물부 문원탁 주무관, 농촌진흥청 최용수 박사, 양봉협회 이상철 연구소장



▲ (오른쪽부터) 양봉협회 배경수 회장, 양봉조합 조상균 조합장, 양봉조합 박홍규 이사, 양봉협회 조균환 부회장, 농림수산물부 이연섭 사무관, (주)동아양봉 유재형 대표이사, 양봉협회최규철 사무총장(뒤)